







<무대>의 몸 언어 (배우: 오지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말한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며,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오지현 배우는 이러한 몸 언어를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고,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무대>의 몸 언어는 단순한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깊은 정서와 철학이 담긴 예술적 표현이다. 오지현 배우는 무대를 자신의 캔버스로 삼아,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조각품 같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대>의 몸 언어는 관객과 배우 사이의 거리를 좁혀준다. 오지현 배우는 관객의 눈을 마주치며, 그들의 감정을 공유한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관객의 마음을 읽는 듯,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낸다. 오지현 배우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녀의 몸 언어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오지현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우산>의 3인 3색 (배우: 임현희)

임현희는 "우산"이라는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을 선보였다. "우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임현희는 "우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임현희는 "우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임현희(임현희, Um Hyun Hee)

배우임현희는 "우산"을 비롯해 "우산" (2020), "우산", "우산", "우산" (2018) 등을 연출했다.